

황지중앙교회와 광산촌선교

이 상 진(목사, 강원 태백 황지중앙교회)

시작하는 말

필자는 1988년 10월 1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 태백 황지중앙교회에 담임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당시 태백시 인구는 12만 8천 명이었고 교회는 50 곳 정도였으며 지역 안에 광업소가 38개 처였고 광부는 1만 1천명, 무연탄 생산량은 연간 520만 톤이었다. 황지중앙교회는 연건평 262평의 중삼층 건물에 주일 장년 약140여명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였다.

부임 후 광산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놓고 심방을 통하여 교우들의 형편을 살피고, 교우들의 일터인 막장을 찾고 설문지를 통하여 교우들의 욕구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발빠르게 나름대로 광산목회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89년 2월부터 시작된 석탄합리화 사업이 2년 정도 진행되면서 1990년 말 광업소는 15개로, 광부는 7천7백 명, 무연탄 생산은 연간 320만 톤, 태백시민은 8만3천명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변두리의 집들은 흥가가 되고 교회도 2-3이 문을 닫게 되었다.

결국 수립한 목회계획을 제대로 실천해 보지도 못하고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로는, 어떤 면에서는 목회 계획은 있었으나 그 계획대로 목회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임시방편 식으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필자가 광산목회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허나,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좀더 목회다운 목회를 위하여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바쁜 사람에게 무슨 원고 청탁이냐고 불평했던 한경호 목사에게 도리어 감사하면서 나의 광산목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 활동

1988. 10. 1 황지중앙교회에 부임한 필자는 과거 농촌목회 10년 경험을 토대로 우선 목회 현장 이해와 광산목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첫째, 교우들 가정을 심방하게 되었다. 이 심방을 통해 교우 75%가 광원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들이 태백에 오게 된 것은 이일 저일 하다가 실패하고 3년만 돈벌어 이곳을 떠나겠다고 생각하고 태백을 찾았으나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 이상 된 가정이 35%이고 나머지는 몇 달 안 되는 가정들이었으며 그리고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곳 태백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회계획 수립을 위하여 두 번째로 한 일은 교우들의 일터인 막장을 찾는 일이었다. 막장을 찾은 나는 우리 교우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막장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한 그 땅 끝이 바로 이 막장이니 너는 이 막장 인생들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막장 인생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음성이었다.

목회계획수립을 위하여 세 번째로 한 일은 설문지를 준비하여 교우들과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조사한 일이었다.

이 설문문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우들은 목회자가 오랜 기간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과 우리 황지중앙교회가 아픔이 많은데 이는 교회가 작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교회 성장에 대한 욕구가 대단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교회가 사회에 너무 무관심하기에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교우가정 심방과 교우들의 일터인 막장을 찾는 일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목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목회계획 수립 내용은 한마디로 예배, 교육, 봉사, 선교(전도) 등 교회의 기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형편상 교회성장과 지역발전 그리고 하나님나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예배, 교육, 봉사, 선교(전도)를 중심으로 한 목회

어느 교회나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하지만 광산촌은 광산촌만이 갖는 아픔이 있고 한(恨)이 있고 사방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로 교회가 설립되었기에 문제도 많았다. 그래서 예배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배를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서서히 일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주일예배는 경건하게 드리고, 찬양예배는 찬양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찬양 선교단을 조직하여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고, 수요일은 기도회이기에 말씀연구와 합심 및 통성 기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성장을 위하여 우리 황지중앙교회로써는 한 번도 실시한 바 없는 특별새벽기도회를 년 초1회 년 말 1회 실시하였고, 잃은 양 찾기를 위하여 릴레이 기도와 전도활동을 매년 4월말로 정하여 약 2개월 간 실시하였으며, 예수초청 큰잔치 및 중앙가족 다 모이는 날(총동원)을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실시하였고, 복음전도단을 조직 매주 일회씩 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되 역시 한번도 실시하지 않

은 성경공부반을 개설 운영하되 예배, 전도, 봉사, 선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하였고 금요 권찰 예배를 신설하여 예배보다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회론 강의 등, 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힘썼다. 그런데 정말 신이 날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였다. 1990년 10월 마지막 주일 예수초청 큰잔치 및 중앙가족 다 모이는 날에는 어린이까지 포함 320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배 이상 부흥한 것이다. 이러는 동안 나는 후배들로부터 “상진이 형은 전차에 받친 것 같아”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반갑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내 성향과는 다른 목회를 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들 부러워서 한 말이라고 좋게 말해 주는 후배도 있었다.

2) 위로하고 치유하는 목회

목회활동에 있어 어느 목회자이던 어려움이 있겠지만 광산목회는 목회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뜻하지 않는 광산 사고로 인하여 그 사고처리와 사고처리 후 남아 있는 식구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필자가 부임한 후 태백에서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광산사고들이 있었다. 우리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도 세 차례 광산사고로 세 명의 성도들이 소천하였다. 조 아무개 집사의 남편은 퇴근길에 수해로 인한 광산사고로 실종이 되었는데, 여러 날 시신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며 기도하고 시신을 찾는 일에 몰두하였다. 결국 5일이 지나 찾았다. 불행 중 다행은 시신을 찾았을 때 별로 상처를 입지 않고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인인 조 아무개 집사는 여러 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의 통곡에 모두들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였다. 그런가하면 함보 탄광 사고 시에는 12명이 갱내에 매몰되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우리교회 서리 집사였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추운

겨울날 밤, 밤을 지새우며 무사히 구출되기를 기도하며 갠 입구에서 애간장을 녹이며 기다렸다. 한 명의 광부가 구출될 때마다 생사를 확인하게 되고 이미 숨을 거두었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 흥 집사가 아니기를 바라며 다음의 소식을 묵마르게 기다렸다. 그런데 사고 하루가 지나 열 번 째로 구출된 자가 있었는데 역시 사망자였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가 바로 흥 집사였다. 부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나와 나의 아내도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또 한번의 사고는 금년 봄에 일어났다. 우리교회 안수집사요 강원동노회 아동부 연합회 회장인 고 아무개 집사가 사고를 만난 것이다. 평소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재정을 맡아 애를 쓰고 누구보다 나의 목회를 많이 협력해준 집사이기에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이런 광산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고 자체가 마음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것은 사고처리 과정이고 사고처리 후 남아 있는 식구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가령, 사고를 만난 식구들은 남편을 보내고 정신이 없고, 자식들은 아직 어리다보니 보상문제에 목사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다 보면 회사측에서는 제 삼자가 왜 간섭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해 온다. 이럴 때마다 목사가 아니라면 아니 목사이기에 때론 더욱 심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허나, 이런 것도 어렵지만 잘 이겨내었다. 정말 힘든 것은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순간 순간마다 눈물 흘리는 것은 보통이고 때론 깊은 실의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때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맥을 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정말 마음이 저렸다. 설교로 위로하고 상담으로 위로하고, 때론 식사를 같이하며 위로해 보지만 처음 3개월은 거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한마디로 제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다 한 6개월이 지나면 제정신이 드는 것 같으나 3년을 넘기기까지는 홀로 서지 못하여 목회자가 여러 면에서 배려하고 치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로하고

자유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반면에 오랜 세월이 지나기는 하지
만, 언젠가 썩썩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목회의 보
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된다

2. 사회봉사관을 중심으로 한 목회활동

황지중앙교회는 1993년 3월10일 교회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
다. 그래서 교회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
의 하나가 사회봉사관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교회 바로 앞에
위치한 과거 한성탄광 복지관을 어렵게 구입하게 되었다. 지하
16평과 지상 1층, 2층, 51평씩 합 118평의 건물이었다

1) 사회봉사관 운영

사회봉사관을 구입한 후 2층에 독서실을 꾸미고 교회 출석하
는 중고등 학생들과 주변 청소년들이 사용토록 하였다. 독서실
을 마련하게 된 것은 광산촌의 사택들이 비좁아서 학생들이 공
부할 만한 공간과 분위기가 되지 못하기에 이런 어려운 학생들
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실을 꾸며 운영하게 된 것이
다. 그리고 1층에는 1994년 10월 1일 문을 연 광산지역 환경연
구소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밖에는 시민단체 사무실로 사용토
록 하였다.

2) 태백 희망의 살림터 설립과 운영

1998년 IMF 사태를 전후하여 2층 독서실은 태백시 청소년 공
부방으로 바뀌었고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나 그 밖의 저소득 실
직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검은 땅에 푸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
여 '태백 희망의 살림터' 라는 복지단체를 설립하였다. 지금은
환경센터(녹색가게, 희망의 문고, 청소년 공부방, 환경감시단)
와 실업센터(노숙자 쉼터, 노숙자 잠자리 제공, 노숙자 무료급
식, 실직자 일자리 알선 및 상담, 저소득 및 소년소녀가정 김

치나누기)를 운영하고 있다.

‘태백 희망의 살림터’라고 이름하게 된 것은 검은 땅에 푸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즉, 태백은 탄을 캐는 곳이기에 검고, 아픔과 한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그 속이 썩고 타서 검다고 한다. 그리고 푸른 희망을 꿈꾸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 검은 땅 후에 푸른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림터’란 살리는 곳, 함께 살림하는 곳이란 뜻으로 살림터라 하였다

‘태백 희망의 살림터’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은 현재 대표인 나를 포함하여 직원 4명과 공공근로자 2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다수가 있다.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이다. 노숙자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은 알콜 중독자가 된다. 그래서 자기관리가 안되기에 술을 마시면 소, 대변을 아무데나 보고 아무데나 쓰러져 잔다. 이들에게 먹거리, 잠자리 제공하는 것 보다 힘든 것은 어떻게 하든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알콜치료 프로그램과 다시 서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보지만 힘은 힘대로 들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에 이일을 정말 계속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예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다. 베품이라는 것은 끝까지 베풀어야 의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일이다. 환경상품, 유기농산물,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상품 준비와 유기농산물을 준비하는 일 특별히 서울이나 중소도시에서 헌옷을 구입하여 매장으로 옮기는 과정은 힘들기도 하지만, 헌옷이 매장에 들어오면 이 소식은 온 동네에 알려지고 많은 저소득 가정의 주부들이 찾아와 비록 헌옷이지만 자신들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하여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분이 좋다. 그리고 환경상품이나 유기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판매하는 곳이란 우리 녹색 가게뿐이기에, 더욱이 환경상품도

초창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구입, 이용하기에 보람이 있다.

3) 해외선교 및 선교단체 후원활동

‘오늘은 태백과 한국을, 내일은 아시아와 세계를!’ 이라는 표어 아래 해외선교와 선교단체 후원에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금년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자매교회 방문 및 현지 처소지도자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중국을 다녀왔다. 금년이 벌써 네 번째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강원동노회 중국선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강원동노회 중국선교회는 지난 97년부터 류경식 목사께서 앞장서 조직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 선교회의 살림을 필자가 맡으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갈 때마다 접하는 것은 북한소식이다. 금년도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 탈북자들이 10만-30만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금번 이러한 사실을 접하면서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한민족 선교연구소는 물론 관심 갖고 참여하는, 아시아를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 그리고 월드비전 등의 단체가 크게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물론 그밖에 우리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교회나 선교단체 들까지 말이다

3. 교단 및 교계를 중심으로 한 목회활동

필자는 강원도 강릉 출생이고 원주에서 자라났고 1979년 평창 대화에서 9년1개월 간 목회를 하고 이곳 태백에서 13년째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 강원노회 청년회 연합회와 청년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한 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 특히 토박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다보니 다

른 이들보다 좀 빠르게 노회 임원회에 뛰어들게 되었다.

1) 노회 및 총회적 활동

필자는 1993년부터 8년 간 임원으로 활동하고 지난해 노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노회 서기 때부터 총회 총대로 활동하게 되었다. 특별히 강원도에서 오래 살다보니 강원도가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은 환경 및 문화선교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를 노회에 제안 강원동노회는 노회 이미지 사업으로 환경 및 문화선교를 특별히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10월1일 광산지역 환경연구소 개소 시부터 오늘까지 소장을 맡아 활동하다 보니 강원동노회 환경보전위원장과 총회 환경보전위원회 서기, 총회 환경선교회 부회장과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이사 등 환경선교에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에 만족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활동 결과 태백의 환경운동가 하면 필자를 말할 정도로 태백에서 환경보전 활동가로 자리잡게 되었다.

2) 교회협의회 중심의 활동

필자는 교회 부임 후 3-4년 간은 이미 언급한대로 교회성장에 주력하였고 3-4년이 지난 후 태백시 기독교교회협의회 활동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1994-5년에 총무를 지나 1997년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총무와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지역은 폐광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심지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자 탄전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은 지역이 피폐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개발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90%가 산림지역이라 개발이 어려웠고 더욱이 석탄생산으로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는데 여기에 마구잡이식 혹은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탄전지역 지원 특별법을 잘 마련하면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개발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광산지역 사회연구소 제안에 동의하여 동참하게 되었다.

결국 탄전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그 법안으로는 개발도 어려웠고 환경친화적 개발은 더더욱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고민하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협의하다가 환경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1994년 10월 1일 광산지역 환경연구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제안했다하여 소장직을 맡게 되었다. 소장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태백지역 현안대책 위원회 소위원, 태백시 발전 자문위원, 태백 준농림지역 숙박업 및 음식점 인허가 심의 의원, 자연사 박물관 실무 추진 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연구소 활동의 결과로 지역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필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필자를 태백의 환경운동가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과 우리교회 성도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4.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목회활동

교회 부임 후 3-4년까지만 해도 교회 성장에만 주력했던 나는 1989년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단기간에 대량의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이 피폐되자 지역이 살아야 교회도 산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지역살리기 혹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광산지역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지역 현안대책 위원회 등에 참여하게 되었다. 과거 장로교(통합)청년연합회에 몸담고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태백 아침포럼 이라는 지역 문제를 조사, 연구,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모임에 참여, 공부하면서 이런 일에 힘쓰게 되었다

1) 지역중심의 시민단체 활동

필자는 광산지역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필요에 따라 태백 환경운동협의회를 조직한다거나 태백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을 조직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런 연유로 이런 환경과 관련된 단체의 장(長)을 맡게 되었으며, 이런 단체의 장이 되다보니 각 단체간 고유한 사업 외에 단체간 서로 연대하여 태백산 등산로 복구사업, 황지 연못 나무이름표 및 새집 달아주기, 환경의 날 행사, 생태학교 등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KBS 태백방송국을 통해 지역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약 10분간씩 방송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태백 희망의 살림터 대표로 활동하다 보니 복지단체간 정보교류와 경험나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태백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금년 봄 태백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선교를 위해 힘쓰다 보니 도움과 협조를 요하는 단체들이 있어 이를 허락, 태백사회복지회의 이사와 태백 헤비타트(사랑의 집 짓기) 이사 등에 위촉받아 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한번 꼴로 선거가 있어 그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태백시 기독교교회협의회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하였고 특별히 삼척 MBC TV 방송국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등 몇 차례 참여한 것이 인연이 되어 시민들의 추천으로 태백 바른선거 실천시민모임의 회장직을 맡아 선거 때마다 선거와 관련된 감시활동 등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회협 회장 재임 시 북한동포 돕기 운동이 한창일 때 우리도 무엇으로든 북한을 도와야 할 것 아닌가? 란 당위성 때문에 북한동포 돕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북한동포 석탄보내기 운동본부를 조직하고 대표를 맡아 오늘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 운동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태백 선린교회의 원기준 목사께서 북한주민들이 땀감부족으로 추위에 떨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고, 태백시 교회협의회가 이일을 필자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연탄 매장량은 많지만 거둬지는 수해와 폐농으로 인하여 광산에서 채탄하는 일에 동원되는 주민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채탄기술이 낙후되어 채탄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공장 가동도 중단되고, 겨울 땀감도 부족하여 북한 주민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했으나 정부의 불허와 몇 가지 장애 요인이 있어 아직 단 한 톤도 못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였으니 언젠가는 성사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2) 광역 내지는 전국중심의 시민단체 활동

필자가 광산지역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다 보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사로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태백 희망의 살림터를 운영하다보니 강원도 실업대책 시민연대 상임대표로 전국 실직노숙자 종교시민단체 협의회(전실노협), 전국 실업단체 연대회의(전실연), 강원도 반부패 국민운동 공동대표 등으로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회 선교라는 측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닫는 말

필자의 목회활동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말 정신 없이 뛰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피로도 쌓이고 일도 너무 분산되고 성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간혹 주변 목회자들과 성도들, 지역 주민들이 질문한다.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냐 고 말이다. 이때마다 필자는 왜 묻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면 부러워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용납

하느님은 생각이 들어서라고 한다.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변인들의 도움과 특별히 우리 황지중앙교회 교우들의 협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고 말한다. 교회를 섬기는 일과 사회를 섬기는 일 모두가 목회활동이라고 말한다. 단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먼저이고 사회선교 활동은 그 다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선교 활동을 함에 있어 성서적 입장은 요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나도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물론 세상을 사랑하되 세속화는 경계해야 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입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개혁자들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장로교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구생명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필자에게도 아쉬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 새로운 세기 21세기는 목회활동을 분산시켜서는 안되고 집중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지역 인구가 가장 많이 살았던 때의 12만 8천에서 현재는 5만 8천이 살고 있기에 자연 교세가 감소되고 교회성장이 둔화되고 동시에 인력과 재정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쁘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지만, 그래도 한계가 보이고 장애가 있기에 아픔과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였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으며 생각도 깊이 할 여유도 없다. 정말 여기서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필자는 자신의 목회활동을 다시 점검하고 분석하여 좀더 목회다운 목회를 위한 목회계획을 새

롭게 수립하고자 다짐해 본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검은 땅에 푸른 희망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구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다

이상진 목사의 주소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2동 368-212 이고 전화는 033-553-7085이다.